

윤인구의 생애와 교육사상 연구

이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 경제권에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대국이 되었다. 이 땅에 개신교가 전파된 것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독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교육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도 이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동반하였다. 우리나라가 구한말에서부터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와 해방, 미군정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의 나라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한 선각자들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그리고 예술계 등에 많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종교계의 기독교계와 교육계에서 큰 공헌을 한 윤인구의 생애와 업적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한국경제와 교육 그리고 기독교의 발전과정에 윤인구가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기독교계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와 목회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의 지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윤인구는 훌륭한 교육자인 동시에 목회자요, 교육행정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교계의 선구자로서 그 공로가 아주 크다. 그런데 윤인구가 우리나라 교육계와 기독교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인구가 설립했던 부산대학교와 부산지역사회 그리고 총장으로 지냈던 연세대학교에서 윤인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총장하면 용재 백낙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용재 백낙준에 대해서는 논문¹⁾도 나왔고,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기독교계 그리고 정치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윤인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부산교육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사범학교도 설립하였다. 목회자로서 소정교회와 부산광복교회의 두 교회도 설립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원을 설립하였고, 부산장신대학교의 전신이 영남신학교의 기틀을 세웠다. 이렇게 두 개의 국립대학교,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신학교의 설립에 공헌한 인물치고는 교육계와 기독교계에서는 윤인구를 기억하고 그 공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고, 본 논문을 통해 윤인구가 우리나라 교육계와 기독교계에 기여한 공로를 밝혀 그의 교육사상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기독교계에 윤인구의 업적과 교육사상을

1) 손인수, 「용재 백낙준의 생애와 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1977)

각인시켜 기리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윤인구의 생애와 교육목회와 교육사상을 주로 하는 연구이므로 윤인구가 수학한 과정과 해방 전의 현장목회와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운영과 조선신학교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방 후의 미군정하의 경상남도 학무국장직을 수행하며 국립부산대학교와 부산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국립부산대학교의 총장과 연세대학교의 총장의 직을 수행하며 시행한 교육방침과 교육정신과 목회를 하면서 남긴 설교문을 통해 그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II. 윤인구의 생애와 업적

윤인구의 교육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난 시기의 사회환경과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윤인구를 양육하여 그의 인성이 형성되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인구가 어떻게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는 지와 성장 후 사회활동이 어떠한지 그의 업적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윤인구의 생애를 살펴보고 난 후 그의 업적을 해방 전 업적과 해방 후의 업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 윤인구의 생애

윤인구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의 성장배경을 살펴보고 그가 성장하며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 유학생활을 일본 동경 유학시절과 미국과 영국에서의 유학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윤인구의 신앙 성장의 배경

윤인구는 1903년 11월 1일(음력) 낙동강 연안의 부산 구포에서 아버지 윤상은과 어머니 박영자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²⁾

윤인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16세 때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 50통을 비밀리에 전달하다가 동래고보 3학년 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면서부터였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던 광야의 여정은 그 일을 계기로 윤인구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가 YMCA학관에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듬해인 1920년에 아버지가 보내준 유학의 길을 통해 윤인구는 신학도의 길을 걷게 된다.³⁾ 3.1 운동 후 동래고보가 개학을 했으나 동맹휴학으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윤인구는 친구 金大鍊⁴⁾과 상의하여 서울로 유학가기로 결심하고 부친의 허락을 받았다. 서울의 YMCA의 청년회 학관에 다니며 영어도 배우고 강연도 들었으나 학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1920년 정월초 윤인구는 당시 와세다(早稻田)대학 정경학부 유학생 河俊錫을 따라 부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동경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를 찾아가서 白南薰을 만나 중학예비학교들을 거쳐 名敎中學에 편입학하였다. 바로 얼마 후 윤인구의 부친인 윤상은이

2)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부산: 제일인쇄, 1988), p. 29.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부산: 도서출판 미남, 2010), p. 106.

4) 구포 화명리 출신으로 윤인구와 동래에서 하숙을 같이 했었고, 나중에 서울 배재고보를 마치고 세브란스 의전을 다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구포로 귀향하여 해방을 맞아 동래군수 직을 맡았으나 신병으로 병원에서 별세했다.

은행 일을 그만두고 누이동생 연숙과 함께 만학의 길로 게이오대학 경제학부로 유학을 왔다. 상해임시정부로 송금 사건으로 신변상 위협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⁵⁾

2. 일본 동경 유학 시절(1920. 4 ~ 1929. 7 : 9년 3개월)

윤인구는 3.1운동 때문에 한국에서 중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920년에서 1931년까지 일본, 미국, 영국에서 청년시절을 보냈다. 일본 메이쿄오 츄우가쿠(名教中學)에 편입학하였으나 이 학교는 화족이 설립한 학교로서 순일본민항실중심주의의 학교이고 질이 좋지 않아서 윤인구는 다음 학기인 1920년 9월에 한국학생과 인연이 깊은 기독교학교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 中學部로 전학하여 1923년에 졸업을 하고 당시 부친은 게이오(慶應)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 高等學部 文藝科 3년의 졸업논문은 윤인구가 숙독하여 감화를 받았던 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에 관한 것이었다. 문예과 졸업 후 23세가 되던 해 1926년 3월에 윤인구는 明治學院 신학부 본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윤인구는 明治學院에서 기독교 신앙과 청교도적 생활을 배우고 몸에 익히게 되었다. 明治學院의 신학부는 그 출발이 일본에서의 잇치신다이카쿠(一致神學校, Union Theological Seminary)였던 만큼 처음에는 미북장로교와 화란개혁파 교회의 연합이었고 한 때는 미남장로파도 그 연합의 일원이었다. 신학부의 교수 중에는 다수의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다. 당시 명치학원 신학부의 주류는 리츨(A.B.Ritschl)적이었으며 리츨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인 W.Hermann과 K.G.A.Harnack의 사상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리츨流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쿠와다(桑田) 교수는 점차 H.R. Mackintosh의 신학에 심취하게 되어 윤인구가 후일 H.R. Mackintosh를 찾아 영국 Edinburgh로 가도록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윤인구의 신학노선을 알 수 있다. 명치학원은 미국장로교와 화란장로교 등이 연합하여 세운 칼빈정통주의적인 신학교였으나 당시 사조는 리츨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교수들이 많아서 리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인구는 미국의 신학석사과정에 진학하여 리츨적인 신학의 논문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에서의 쿠와다(桑田) 교수의 영향으로 결국 H.R. Mackintosh가 있는 영국 에딘버러로 가서 수학하게 된다. 따라서 윤인구는 리츨적인 신학을 배우고 연구했지만 본인이 자유주의 신학자라 데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칼빈정통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세력이던 평양신학교 출신 목회자들과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 출신 이외의 신학자나 목회자들 특히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學院)에서 공부한 김재준이나 송창근 등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각된다. 이 두 그룹간의 대립은 박형용 목사측과 김재준 목사와 송창근 목사측의 대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인구는 김재준이나 송창근처럼 자유주의신학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중에 조선신학원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혁신교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김재준측에서 윤인구측을 친일로 몰아세우는 경우에서 확인된다.

일제 치하에서의 윤인구는 일본 유학 생활 무려 9년 3개월을 보내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청년기를 다졌으며, ‘기독교 교육사업’을 통해 신생명을 후세대에 물려 줄 비전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 마련된 남은 신학도의 길을 떠나게 된다.⁶⁾

5)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35-36.

6)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pp. 116~117.

3. 미국·영국에서의 신학 연구

윤인구는 26세가 되던 1929년 3월에 명치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신학사 자격을 인정받아 그 해 9월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연구과(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Course)에 입학하여 주로 교리 방면의 과목을 수강하였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에는 Stevens, 교수에는 Erdman, Hodge 등이 유명했고, 윤인구는 교리 방면의 Leitshur 교수로부터 St. Augustine, J. Calvin, History of Atonement 등의 강의를 들었다. 또 윤인구는 P. Abelard의 속죄론사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기도 했고, “리츨적 신학(Ritschlian Theology)”이라는 논문으로 졸업했다. 재학 중 윤인구는 프린스턴대학 채플에 출석했다. 프린스턴대학에는 Wilson 대통령이 대학원장으로 있기도 했고, 이승만 박사도 이 대학에서 수학했다. 윤인구는 졸업이 다가오자 유니온신학교에 갈 생각도 해 보았지만, 미국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질문명에 윤인구는 반감이 생기기도 했고 미국인들의 종교생활이 너무 피상적이라 실망해서 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중단하고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國際宣敎協議會)가 있는 영국 Scotland의 Edinburgh의 에딘버러대학 대학원에 지원하여 입학허락을 받았다.⁷⁾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는 1910년 제1회 세계선교회의(World Missionary Conference)⁸⁾를 개최하여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이 시작된 도시이다. 윤인구가 일본에서 다닌 明治學院 신학부도 원래 일치신학교에서 바뀐 신학교로 지금은 동경신학대학이다. 윤인구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칼 정신을 배우게 되어 나중에 귀국하여 조선신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시 연세대학교에 연합신학대학원을 유치한 것도 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에딘버러 대학은 고건물의 대학본부가 있었다. 이 대학에서 윤인구는 조직신학 분야를 주로 연구하였고, Curtis 박사의 신약석의와 W.P.Paterson 박사의 조직신학, 그리고 New College의 H.R.Mackintosh⁹⁾ 박사의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다. H.R.Mackintosh 박사가 윤인구에게 ‘이 곳에 와서 얻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고 윤인구는 답하였다. 그것은 지적이나 신학적이라기보다 신념과 신앙 상으로 힘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윤인구는 그 때 에딘버러를 찾은 것이 다행이었다. 미국에서 2, 3년 더 있다가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1년이라도 에딘버러에서 보낸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

7)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51-52.

8)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전도를 논의한 세계회의. 런던(1880), 뉴욕(1900)에 이어서 에딘버러(1910)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결성의 움직임이 생기고, 1921년에 실현되었다. 28년의 예루살렘 회의에는 해외전도의 모체인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교회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피전도지의 교회대표도 출석, 전도의 파트너로서의 대등한 지위를 얻었으며 후에 세계교회협의회에 합병되었다(196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874&mobile&categoryId=1018>

9) 스코틀랜드 페스레 출생. 에딘버러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의 여러 대학에 유학하였다. 1904년 에딘버러대학 뉴칼리지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 성서비평학과 신학자 A.리츨의 학설을 영어권에 소개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음파에 속하는데, 그는 인간이 하는 일에 앞선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죄의 용서가 복음의 중심사상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스도론(論)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써 그 신성(神性)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케노시스론의 입장에 섰다. 주요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론》(1912) 《현대신학의 유형(類型) 솔라이어마허에서 바르트까지》(1937) 《용서의 그리스도교적 체험》(1927) 등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041&mobile&categoryId=200001111>

각이 들었던 것이다. 박사과정을 마치자 더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고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8세가 되던 1931년 3월말 윤인구는 에딘버러를 떠나 런던에 들러 Kings College에서 스위스 신학자 Emil Brunner¹⁰⁾의 신학강의를 들었고 고려대학교를 창립한 김성수도 만났다. 윤인구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소련), 만주, 신의주, 평양, 개성을 거쳐 경성역에 도착하여 약혼자 방덕수양을 만났고, 구포역에서 여섯 명의 동생들(예구, 현표, 현성, 연속, 연학, 학자)을 만났다.¹¹⁾ 이후 윤인구는 오랜 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 땅을 향하신 원대한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윤인구는 20대 청년기를 당시 그리스도 복음화가 힘든 일본 땅에서 그 기반을 다지고, 그리스도 정신이 국교 이념인 미국과 영국 본토에서 목회자로서의 확고한 소명을 가슴에 품고 1931년 4월에 귀국하게 된다. 윤인구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땅을 거쳐 귀국하는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윤인구는 아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차창에 비친 더 넓은 대지를 향해 주님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국의 땅을 감회 깊게 딛게 되었을 것이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윤인구는 그 다음 해인 1932년에 29세의 나이로 진주옥봉교회의 강도사로 부임하였다.¹²⁾

B. 윤인구의 해방 전 업적

윤인구가 봉사의 삶을 살며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적들을 크게 해방 전의 업적과 해방 후의 업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윤인구의 해방 전의 업적으로는 진주옥봉교회의 강도사로 부임하여 이듬해에 담임목사가 되어 교회를 부흥시켰고,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의 교장으로서 농촌교역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조선신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하며 현재 한신대학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1. 진주옥봉교회의 육성

윤인구가 1931년 미국과 영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인 4월 16일 윤인구와 방덕수양은 초량교회 朱基徹 목사의 주례로 양가 부모와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 Withers 여선교사 댁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경주 불국사로 신혼여행을 떠났다.¹³⁾

윤인구는 1931년 8월 경남노회 試取(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講道師 자격을 얻어 9월 초에 淸州玉峯教會(현재 진주교회)에 부임하여 4년간 시무하였다. 진주옥봉교회는 부산의 초량교회와 마산의 문창교회와 함께 경남의 대표적인 교회였다. 윤인구는 이듬해인 1932년에 29세의 나이로 진주옥봉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철저히 준비한 설교를 하며 성서학원

10) 빈터투어 출생. 대학 졸업 후 영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퀴리히대학교 조직신학·실천신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때(1942~1944) 총장도 지냈다. K.바르트 등의 초기 변증법 신학운동에 참가, 쉐라이어마허를 비판한 《신비주의와 언어(言語)》(1924)를 발표하였다. 자연신학의 가부(可否)를 둘러싸고 바르트와 논쟁하여 신(神)과 인간의 결합점으로서의 이성을 인정한 《자연과 은총》(1934)을 썼는데, 바르트로부터 《부(否)》라는 논문으로 논박을 당하였다. 그 후에도 바르트와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 주요 저서에 《복음적 신학의 종교철학》(1926), 《중보자(보조자)》(1927), 《명령과 질서》(1932) 《자연과 사상》(1934), 《인간》(1937), 《교의학(敎義學)》(3권, 1940~1960), 《영원(永遠)》 등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473&mobile&categoryId=200001142>

11)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54-56.

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p. 117.

13)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59-62.

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부임초기인 당시 윤인구의 설교는 성서중심이었고 신학적으로는 해석적이었으며, 실천적이고도 애국적이었다. 아쉬운 점은 윤인구가 1939년 경 조선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왜경들의 감시를 받으며 집안수색도 당하기도 하여 당시의 설교 문들을 불태워버린 것이 애석하다.¹⁴⁾

2. 농촌 교역자 양성

윤인구가 진주옥봉교회에 시무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느낀 것은, 교회는 좀 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내면적으로는 좀 더 착실해야 하고 외면적으로는 더욱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인 당시 한국 인구의 90% 이상이 농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농촌생활은 비참할 정도였다. 윤인구는 교회가 농촌을 위해 일해야 하고 농촌을 이끌어 갈 농촌 교역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농촌문제가 대두되었고 덴마크의 그룬트비의 국민고등학교풍이 유행했고 일본에서도 그것이 성행하여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의 농민복음학교도 그 중의 하나였다. 한국에서도 복음농업학교가 여러 군데서 전개되었다. 삼에 배민수도 장로회 총회에 농촌부를 두고 농촌운동을 하였다. 한국의 농촌 계몽운동은 농촌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도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농촌의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 때에 진주에 있었던 Borland 선교사가 농민과 농촌을 위한 농촌 교역자 양성을 위한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를 함께 운영을 제의해 와서 함께 준비하여 1934년 개교를 하게 되었다. 마산에 있는 호신학교의 건물과 대지를 사용하였는데 Borland 선교사는 외국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병에 걸리기도 하여 윤인구는 1935년 1월에 농촌 교회 교역자와 농촌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진주옥봉교회를 사임하고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에 부임하였다. 윤인구는 학교 구내에 교장 사택으로 15평 정도의 집과 교사 사택 한 동을 직접 설계하여 지었다. 그는 운동장으로 쓰던 땅을 개간하여 농장으로 만들었고 주위 땅을 사들여 실습지로 삼았다. 학제는 본과 1년, 전수과 1년으로 했고, 입학은 만 18세 이상의 남자로 교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했다. 그들을 졸업시켜 농촌지도자와 사회의 중견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목적이었다.¹⁵⁾

3. 조선신학원과 신학 교육

조선인의 손에 의한 신학교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려는 논의가 서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외국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한 지방의 교역자들도 이에 호응하였다. 당시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는 평양신학교로 신학 사조는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정통파로 대부분의 교수는 미국인이었고 캐나다인과 호주인도 있었다. 1934년에 감리교 총리원 교육부에서 'Abington One-volume Commentary'라는 한 권의 성서주석을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윤인구, 채필근, 김관식, 한경직, 조희담, 이규용, 송창근, 김재준 등의 교역자들이 번역하였다. 장로회 총회에서 이 성서주석의 내용이 신신학적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여기에 함께한 윤인구와 채필근 목사 중심으로 성서주석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함께 조선인의 손으로 서울에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롭게 세울 신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로 윤인구가 구상하였다. 그러나 평양 중심의 평안도 지방 인사들은 서울의 신학교 설립에 반대하며 평양에 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신학교 설립 인가원을 총독부 학무

14)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62-63.

15)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64-66.

국에 신청하였다. 고심 끝에 총독부는 단안을 내렸는데, 새로운 신학교는 평양에 설립하되 교명을 ‘平壤神學校’로 하고 서울에서 윤인구와 함께 주도적으로 신학교 설립을 진행해오던 蔡弼近 목사를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알고 평양신학교 출신인 채필근 목사를 교장으로 세운듯하다. 다시 말하면, 총독부에서는 일본교단 통리 도미다 미쓰루(富田滿)에게도 의논했는데 그는 한 교파 한 신학교 정책을 진언했다. 결국 평양편이 우세하여 “관제 신학교”를 맡을 친일교장으로 채필근 목사가 뽑혔다는 것이다. 그는 옛날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친일목사로, 동경제대 졸업생이니 안성마춤이었다.¹⁶⁾ 채필근 목사는 윤인구에게 평양신학교로 함께 가자고 권유했으나 즉석에서 거절하였다. 만일 그 때 윤인구가 채필근과 함께 평양신학교로 갔더라면 한국 교회의 역사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인구는 도의상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채필근과 동행하기가 어려웠다. 윤인구는 이 때 채필근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방 후에 채필근 목사는 친일행적으로 구속되었으나 윤인구는 괜찮았다. 서울에서 신학교 설립을 함께 준비해 오던 채필근이 평양신학교로 가고 나서 서울의 신학교 설립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윤인구는 복음학교를 심문 때 목사에게 일임하고 부득이 서울로 가서 신학교육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¹⁷⁾

당시 일제는 교회와 신학교를 괴롭히며 억압했다. 더군다나 조선신학원은 학교 인가가 없었기에 경성제대의 하나무라(花村) 교수, 야마구찌(山口) 목사, 무라키시(村岸) 목사 등의 일본인을 이사와 강사로 참가시켰다. 조선신학원이 인가를 얻어 정식 학교로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인가는 받았으나 학생이 없는 연희전문은 신과와 합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인구는 연희전문의 兪億兼도 만나 여러 가지로 합의를 했으나 일제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고 출자자 측에서도 잘 응하지 않았다. 둘째, 서울에는 연희전문 외에 성결교 신학교가 인가를 받았고, 감리교 신학교와 조선신학원은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에 윤인구는 인가는 성결교회, 건물은 감리교 신학교, 기본금은 조선신학원이 제공하여 세 신학교를 합하면 이상적인 신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서양 각국에서 교회합동을 행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신학교가 합동하여 잘 운영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윤인구가 일본에 유학가서 신학을 공부한 메이지(明治)학원 신학부도 잇치신갓꼬(一致神學校)에서 바뀐 신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특히 윤인구가 수학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는 1910년 세계선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인구는 신학을 공부하며 에큐메니칼 정신이 몸에 베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조선신학원 설립과 운영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 재직 시 연합신학대학원 유치에서도 그의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이 나타난다. 윤인구가 연합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결교회측은 합동하기로 언약을 했다가 배신하였고 감리회측은 우여곡절 끝에 합동이 실현되어 1년간 합동 수업을 하였다. 교사는 감리교 신학교였고, 감리교 신학교장은 金仁泳, 장로회 신학교장은 윤인구로 교장실은 두 개, 교수실은 하나였다. 윤인구는 조직신학을, 김인영은 교회사를 강의했고, 신약은 홍현설, 구약은 김재준이 맡았고 학생 수는 150여명이었다.¹⁸⁾

16)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김재준전집 제13권, 범용기(1), 새역사의 발자취(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1992) p. 175.

17)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68-69.

18)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73-74.

C. 윤인구의 해방 후 업적

윤인구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다. 교회의 담임목사로 목양사역을 하였고, 복음학교를 운영하며 농촌 교역자를 양성하였고, 조선인에 의한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에서 해방이 되자, 새로운 사명들이 윤인구에게 주어졌다. 윤인구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다. 시대적으로 윤인구만큼 준비된 인재가 희소하던 때라서 지도급 일본 인사들이 물러나자 윤인구와 같은 준비된 인재들에게 국가와 민족이 국가적 과제들을 맡기게 되었다. 윤인구에게는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하라는 임무가 맡겨졌다.

1. 해방과 교육의 회복

해방이 되고 우선해야 할 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재개하는 일이었다. 공립학교의 일본인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해야 했다. 그래서 교원의 확보와 배치임명 그리고 교과를 지시하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 가장 주력한 분야는 교사양성이었다. 교사양성을 위해 한글 강습회와 한국역사 강습회를 열었고, 임시 교원양성소를 설치하고 부산사범학교도 설립하였다. 부산사범학교에서는 한 반에 남녀공학으로 공부하는 반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윤인구의 아내 방덕수도 영어교사로 4~5년 근무했다. 나중에 대한체육회장과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지냈던 박세직에 의하면 윤인구 교장 선생님과 방덕수 선생님을 사표로 삼아서 그분들의 교육정신을 군의 현장에서 실천하였고, 두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엄격함과 자상함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현재의 박세직 자신이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¹⁹⁾ 그리고 부산사범학교의 교가도 윤인구가 작사했다.

2. 국립부산대학교 창립

윤인구는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을 애초에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윤인구는 유학생할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진주옥봉교회의 담임목사로 목회자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의 교장과 조선신학원의 교장으로 이 사회에 봉사하였다. 그리고 윤인구에게 조국의 해방이 또다른 사명을 맡게 하였다. 미군정하에서 경상남도 학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아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이 돌아가고 난 초중등학교를 다시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고 교사양성과 조국의 장래를 위해 사범학교와 대학교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부산사범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즉 윤인구는 처음부터 부산대학교를 설립하려고 경상남도 학무국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학무국장의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대학 설립 시 윤인구는 경상남도 학무국장이었기에 당연히 총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윤인구는 원래 세상의 명예나 자리에는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연세대학교 베이커 교수를 초빙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잘되지 않아서 부득이 윤인구 자신이 총장을 맡게 된 것이다.

윤인구의 교육철학의 이념으로 친히 세운 대학이 바로 부산대학교이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국립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아 태어난 것이다. 수많은 날들을 거쳐 사전에 예비하고 기획해서 만들어진 대학 캠퍼스 안의 곳곳에 묻어 있는 건학 이념과 수많은 상징적 건축물들은

19) 박세직, “위대한 스승에 대한 기억”,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166-168.

윤인구가 국립대학으로서 대양을 향한 그리스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운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대학을 거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금정인으로서 각 사회에 배출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 된 봉사과 헌신의 삶을 기대하며 만든 대학이었다.²⁰⁾ 대통령의 문교장관직의 제의를 거절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세운 부산대학을 통해 윤인구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 아마 이 부산대학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터인데 이 인재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어 이 세상 구석구석 소외된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3. 국립부산대학교의 이전

대학은 ‘국립’이 되기는 했지만 국고지원은 거의 없었고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 덕운동장 뒤의 가교사는 너무 좁았다. 부지가 있더라도 교사의 신축 방안이 없었는데 윤인구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군의 잉여 물자를 민간사업에 원조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사령관을 대신동 가교사로 초청하여 윤인구가 총장실에 교사배치도를 그려 걸어 두었는데 이 배치도를 Withcom 장군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을 사 달라고 하니 Withcom 장군이 웃으며 사겠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Withcom 장군은 교지를 물색해 보라고 하며 영도를 제시했으나 영도는 수도사정이 좋지 않고 발전성이 없어 보여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자고 했다. 윤인구는 동래방면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동래구청의 소개로 현재 부산대학교의 부지를 둘러보았다. 이 부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으나 당시는 방치된 돌무더기의 땅으로 바위만 있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윤인구의 눈에는 잠재성이 있어 보였다. 그 땅에 ‘대학 건설 부지’라는 풋말을 세우고 당시 문교부 장관 이선근에게 땅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문창대’라고 지었다. 이는 북두칠성이 문창성이요, 신라의 문호 최치원이 문창후 시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상무대에서 육군이 훈련을 받듯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오늘날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문창대’라고 부른다. 문창회관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²¹⁾

4. 부산교육대학교 창립

부산교육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사범학교가 개교할 때 이 땅에는 미군정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후 정부가 수립되어 건국의 기틀을 다질 무렵 우리나라는 6.25가 발발하여 민족상잔의 참상을 체험했으며 휴전협정이란 불안정한 평화 속에서도 온 국민은 단결하여 복구와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을 무렵 4·19와 5·16이라는 역사적 변혁의 격동기를 맞았다. 부산사범학교가 설립될 당시 미군정 학무당국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사범학교의 설립도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지방 공공기관이 설립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산사범학교의 설립기관은 경상남도청이 되었으며 실제 주무부서는 경상남도 학무국이었다. 그 당시 경상남도 학무국장 윤인구는 학교설립의 책임자였으며 부산사범학교의 설립이 인가되던 1946년 7월 2일 교장 겸직 발령을 받음으로서 초대교장에 취임하였다.²²⁾

5.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업적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pp. 120-121.

21)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93-94.

22)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2006), p. 74.

1961년 초가을 어느 날 밤중에 윤인구로서는 전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관계자가 연세대학교 총장을 맡아달라며 인장을 들고 연세대학교 이사장을 찾아오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해방 후 백낙준이 학교와 재단을 통해 직간접으로 돌보고 있었고, 백낙준은 민주당 시절에는 참의원의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백낙준 이후 경북대학교의 고병간이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1년이 못되어 60세 정년제로 물러나고 후임자는 기독교 목사로 교육경력자여야 했다. 그래서 윤인구가 적격자로 선임된 것이다. 당시 연세대학교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윤인구를 거의 알지 못했으나 옛 친구이며 선배인 전필순 목사가 이사로 있으면서 추천한 것으로 윤인구는 알고 있다. 윤인구는 상경하여 자신을 선임하게 된 경위를 듣고 거절하기 어려워 2년간만 옳은 분을 얻기까지 기간을 채우기로 생각하고 취임 승낙을 했다. 윤인구는 당시 교육행정에 다소 지켰으나 정년 전에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만 전심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오지 않은 상태였다. 취임 승낙 후 문교부의 승인까지는 1개월이 걸렸고, 4·19데모파 중심으로 윤인구의 취임을 반대한 사람들도 상당 수 있었다. 1961년 11월 어느 날 가족을 동반하고 상경하여 취임식에 임하고 연세대학교 총장 공관으로 이사했다.²³⁾

윤인구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여러 일들을 수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업적을 정리하면 첫째, 윤인구는 목회자로서 연세대학교가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대학이기에 학생들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목실을 신설하여 기독교 교육과 채플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윤인구는 서울역전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신촌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62년에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준공되어 6월 5일에 봉헌식이 거행됨으로서 6·25동란으로 화진된 정든 역전 구 캠퍼스를 떠나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이 대 의료원의 실현을 목격하고 다만 경이와 감개무량함을 느낄 따름이었다.

셋째, 윤인구는 연세찬가를 제정하였다. 윤인구가 부산대학교를 설립하고 “효원의 꿈”(윤인구 작시, 김윤하 작곡)의 노래를 만들었고, 부산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교가를 또한 만들었다. 이를 감안하면 윤인구가 연세찬가를 제정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윤인구는 연세대학교에 교양학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그의 교육철학이 교양교육을 한 다음 학생들이 전공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에서 이미 교양학부 제도를 실천해왔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교양과 인문학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윤인구는 이미 해방 전 일제시대부터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한 결과로 해방 후 문교부도 일본식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윤인구가 실천한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교양교육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인구는 연합신학대학원을 연세대학교에 유치하여 설립하였다.

윤인구는 자신이 세운 부산대학교의 총장직과 조선신학원 교장직을 물러날 때처럼 연세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날 때에도 데모대의 습격과 은혜롭지 못한 일들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며 은혜롭게 물러났음을 알 수 있다.

6. 만년의 신학 교육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서울에서의 정신적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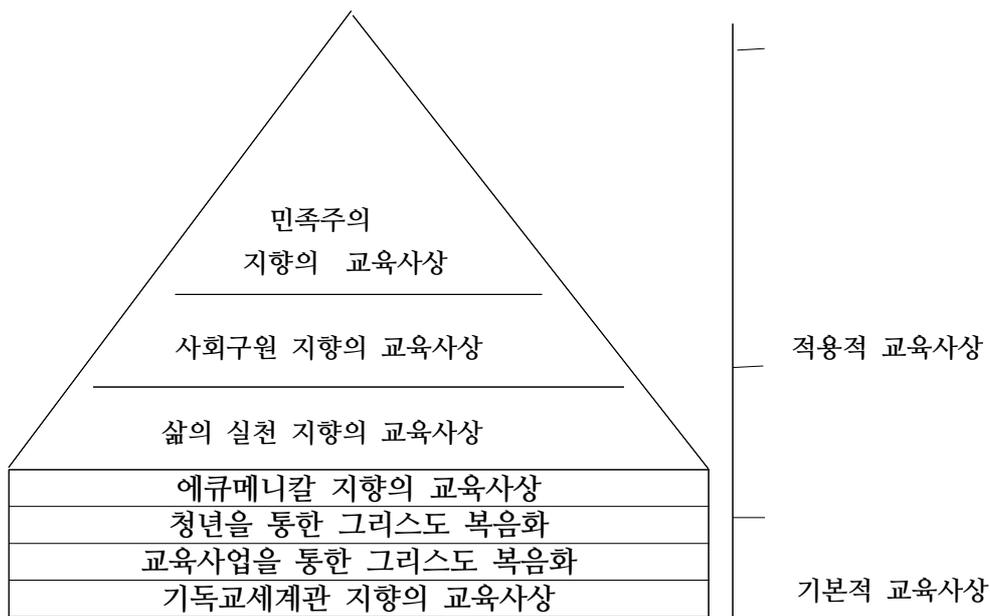
23)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98-99.

과 변동이 신경에 영향을 미쳐 고혈압으로 고생하였으나 병의 차도가 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의 강의요청을 받았다. 이 신학교는 해방 후 서울에서 운영했으나 6.25때 해산되고 부산에 피난 온 사람들 중심으로 일신학교의 교사를 사용하여 약 30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해방 후 일본인의 교회를 맡아 윤인구가 설립했던 광복 교회의 목사가 공석이 되어 2년간 목회활동도 하였다. 부산노회의 신학교 일을 도와야 했다. 그 신학교는 이름만 신학교였지 선교사 한 명이 교장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대로 물러나서 교장은 공석이고 전담하는 교사도 없이 명맥만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사장이 윤인구에게 찾아와 윤인구 외에는 교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 보수 없이 교장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강사도 없이 학생만 20명뿐이니 폐교 직전이었다. 그래서 단 1년간만 시험해 보고 폐교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하자고 했다.²⁴⁾

V. 윤인구 교육사상의 미래 지향적 적용

이 논문에서는 윤인구의 생애를 유년과 학창시절, 유학생생활 그리고 귀국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남긴 업적들로 나누어 조명하여 보았다. 윤인구가 유학생생활을 통해 체득한 진리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한 내용들을 범위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의 삶을 돌아해보면 몸은 이 땅에 서 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항상 내일과 미래를 향하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고 교육계에 일평생 헌신하였다.

〈그림 1〉 윤인구 교육사상의 체계도



그의 미래지향적 교육사상을 도출하면 우선 윤인구의 교육사상을 형성하는 부분과 이렇

24)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 pp. 109-110.

게 형성된 교육사상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인구의 교육사상 중에서 밑바탕이 되는 사상에는 기독교세계관 지향의 교육사상, 교육사업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 청년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 그리고 에큐메니칼 지향의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윤인구의 교육사상 중에서 적용부분에는 삶의 실천 지향의 교육사상, 사회구원 지향의 교육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지향의 교육사상이라고 하겠다. 윤인구의 교육사상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 기본적 교육사상

윤인구의 교육사상 중에서 기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교육사상에는 기독교세계관 지향의 교육사상, 교육사업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 그리고 청년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가 있다.

1. 기독교세계관 지향의 교육사상

그룬트비, 톨스토이, 가가와도요히코(賀川豊彦), 토마스 아 켐피스의 세계관은 바탕에 기독교 정신을 깔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가 국민의 삶에 봉사하는 정신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룬트비는 기독교를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만 평화를 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보았으며, 기독교의 율법과 복음이 사람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과 잘 화합할 때 모든 곳에서, 특히 덴마크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와 국민의 삶이 본래의 자유롭고 올바른, 그리고 자연스러운 신앙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⁵⁾ 윤인구의 교육사상도 이들과 같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윤인구의 복음주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먼저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그리고 희생의 실천이었다.

목회자였던 윤인구가 부산대학교를 설립할 때 굳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대학 명칭을 쓰지 않고 국립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그룬트비의 복잡한 개념 중의 하나인 ‘첫째는 인간, 그 다음으로는 신앙인(First, the Human, Then the Christian)’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굳이 국립대학으로 설립한 이유는 연못 속에 가두어 둔 물고기를 낚기보다는 큰 바다에 있는 크고 다양한 물고기를 낚기 위한 원대한 비전 때문이었다. 윤인구가 수많은 날들을 거쳐 예비하고 기획해서 설립한 부산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묻어 있는 건학 이념과 수많은 상징적 건축물들은 국립대학으로서 대양을 향한 그리스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운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대학을 거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각 사회에 배출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 된 봉사와 헌신의 삶을 기대하며 만든 대학이었다.

2. 교육 사업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

우리나라 초창기의 복음화 과정을 보면 연희전문과 이화여전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등 기독교 중심의 대학들을 통해 복음화가 진행되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해외선교를 나가면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와 의료시설을 세운다. 윤인구의 삶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삶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다. 윤인구가 교육을 통한 복음화 사역에 특히 정열을 불태운 동기는 일본 명치학원 유학 중에 접한 가가와도요히코(賀川豊彦)

25) N.F.S. Grundtvig, 『Folk-Life and Christianity 1847』, p. 40.

가 출판한 “사선을 넘어”를 통해 사회사업의 기록과, 톨스토이가 쓴 서적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동기들이 윤인구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에 뜻을 두게 하였고 또 헌신하게 하였다. 윤인구가 보는 교육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참다운 인생관 위에 선 교육이어야 하며, 모든 위대하고 가치 있는 후에 남길 일의 근거는 예수 신앙을 토대로 한 위대한 업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생 최대의 사업은 정치, 교육, 종교 등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이며, 참다운 신앙이란 올바른 신앙 위에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과, 신앙으로 농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된다고 했다. 우리 삶의 터전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윤인구는 뚜렷하고 확고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교육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되어 윤인구는 목회자로서 보다는 대학 총장으로서 인식이 더 부각되어 목회 면으로 보면 다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윤인구가 이루어 놓은 교육 사업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를 보면 두 개의 개척교회인 부산광복교회, 소정교회와 진주옥봉교회에서의 목회를 통해 교육목회를 하였다. 두 개의 신학대학인 조선학원과 영남신학교를 세워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사범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세워 교사 양성과 미래를 지고 갈 지성인의 산실을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복음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²⁶⁾

3. 청년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

윤인구는 16세에 부모를 떠나 객지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17세에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꿈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다. 신학교에 들어가 문학과 철학 등 각 분야의 심오한 학문적 깊이를 다지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기 드문 청년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였다.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28세에 조국으로 돌아와 진주옥봉교회에서 목양을 시작하여 32세 때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청년 복음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평생을 헌신하게 된다. 두 개의 신학교와 두 개의 국립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기독교 복음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신학교도 윤인구가 36세 때 설립했다. 누가복음 3:23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 쯤 되시니라”라고 했고, 전도서 12:1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윤인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든 준비과정을 거친 뒤 조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한 때가 바로 예수님처럼 30대였다.

청년의 때의 그 기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기상으로 이념을 확고히 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모든 생각과 삶의 목표 설정이 하나님 사업을 위한 비전을 향해 설정될 때 청년을 통한 복음화의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윤인구가 대학을 설립하고 지성인 교육을 통한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이라는 학문의 상아탑 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이치를 학문적인 진리로서 깨우칠 수 있는 장소이며, 대학을 통해 각계 각 분야에 배출되는 지성인들이 궁극적으로 각 분야의 지도자로서 바른 신앙을 가진 전문인 사역자로 활동하여 하나님의 빛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²⁷⁾

4. 에큐메니칼 지향의 교육사상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pp. 117-120.

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 pp. 136-137.

윤인구가 일본유학 중 다녔던 메이지 가쿠인(明治學院) 신학부는 원래 잇치신가쿠(一致神學校)로 미국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 등이 연합하여 운영하던 신학교였다. 따라서 윤인구는 잇치신가쿠(一致神學校)의 학풍에서 교육을 받았다. 메이지 가쿠인(明治學院)이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신학교를 훌륭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연합과 일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윤인구가 일본과 미국의 유학을 거쳐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이 에딘버러 대학이 있는 에딘버러는 1910년 세계선교대회에서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한 도시이다. 즉 윤인구는 일본과 영국의 유학 생활 중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체득하게 된 셈이다. 나중에 윤인구가 유학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선신학원을 개교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합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그 때는 조선인에 의한 신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윤인구가 조선신학원을 준비하던 때는 이미 연희전문과 성결교는 신학교의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윤인구는 연희전문, 성결교, 감리교와 함께 합동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총독부에서 연희전문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성결교는 협의 중 이탈하였다. 그리하여 신학교 인가를 받지 못한 감리교와 함께 신학교 수업을 합동으로 조화롭게 진행하였다. 윤인구는 교단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며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혁신교단의 문제로 감리교와 장로교의 합동수업이 중단되었지만 일치와 연합에 대한 윤인구의 집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인구가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여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물러난 후 연세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평소에 생각해왔던 일치와 연합에 대한 집념은 연세대학교가 연합신학대학원을 유치한 것에서 다시 나타난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의 신학교가 있었지만 대학원은 없었고 대학원 교육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 장로회(한신대학교), 대한기독교 감리회(감리교신학대학교) 그리고 성공회(성공회대학교)가 연합하여 연합신학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했을 때 윤인구는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연합신학대학원을 연세대학교에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신학원의 감리교와 합동수업과 연세대학교에 연합신학대학원을 유치한 것은 윤인구의 일치와 연합의 에큐메니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B. 적용적 교육사상

윤인구의 교육사상의 기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사상에는 삶의 실천 지향의 교육사상, 사회구원 지향의 교육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지향의 교육사상이 있다.

1. 삶의 실천 지향의 교육사상

윤인구는 봉사과 실천의 삶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룬트비의 교육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삶의 계몽'인데 이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살아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문자로 된 책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생생한 삶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구의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뛰어들어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움을 베푸는 실천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윤인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청년시절 일본에 유학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가가와도요히

코(賀川豊彦)의 ‘사선을 넘어’와 그룬트비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으며 교육의 문제는 삶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교육실천은 바로 참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과 일치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가장 참된 삶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토마스 아 켐피스도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윤인구의 이러한 실천적 삶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의 설립과 교장으로 헌신하는 것이었다. 윤인구의 삶의 실천 지향의 교육사상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두 개의 개척교회의 창립과 두 개의 신학교 설립 그리고 두 개의 국립대학교의 설립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인구는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은 농림부 장관의 덕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삶으로 실천한 농민의 덕이고, 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일선 교사의 고생과 희생의 덕에서 비롯된 것이니 무릇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실천적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사회구원 지향의 교육사상

윤인구의 삶은 평생 남을 위하여 살아간 삶이었다. 이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서의 사역은 당시 한국 사회의 90% 이상이 농민이었고, 농촌이었기에 농촌과 농촌교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것은 바로 사회구원과 직결되었다. 30대 초반의 나이로 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서 농촌지도자의 양성은 오늘날 발전된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두 개의 교회의 창립과 두 개의 신학대학과 두 개의 대학의 설립을 통한 교육목회와 사회봉사를 함으로 개인적인 구원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원을 이룩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목회자로서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 직접 교회를 창립하여 사회의 복음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형편이 대학생들이 신앙생활과 학업을 잘 수행하도록 대학생 봉사회 기숙사를 마련하여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사회의 일꾼으로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 봉사회 기숙사가 오늘날 소정교회라는 지역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 또한 사회구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신학대학의 설립을 보면, 당시 선교사 중심으로 신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던 때에 한국인의 손으로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립부산대학교와 부산사범학교(부산교육대학교)를 설립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윤인구는 목회자와 교육가로서 기독교 인재양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시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에 헌신을 하였다.

3. 민족주의 지향의 교육사상

윤인구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의 시대상황 속에서 그가 겪은 특별한 소년기의 경험과 성장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3.1운동에 참여하여 중학을 중퇴하고 서울을 거쳐 일본으로 유학가서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부친의 상해 임시정부를 도운 일과 숙부의 3.1운동 후 옥사 등이 소년기 윤인구의 민족주의적 의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인구의 소년기는 한국근대사의 격변기이자 국권상실기였다. 조선이 식민지하에서 각 지방에서는 의병들의 무장투쟁이 일어났고, 국권회복을 위한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과 계몽운동 그리고 자강운동이 전개되었다. 윤인구의 부친 윤상은은 3.1운동을 기념하여

만든 기미육영회 사업에 참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의 유학경비를 부담하여 많은 인재를 길렀다.²⁸⁾ 그리고 민족은행을 경영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위한 자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일본으로 도피하게 된다. 숙부의 옥사와 부친의 민족은행 경영의 중단과 일본으로 도피 등이 윤인구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국권을 상실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고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윤인구가 설립한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가 일제로부터 폐교를 당하고,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육군 형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일곱 가지의 죄목으로 50일간 구금도 당하였다. 이후 윤인구는 계속적으로 민족의 부흥은 농촌의 부흥과 교육에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농촌부흥 운동과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윤인구가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이 학교가 민족정신을 일깨운다고 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아 폐교를 당하였다. “동방에 생을 받고”라는 시는 그가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접 지어 학생들에게 가르쳐 함께 불렀던 노래이다.

당시 최고 명문가의 자제였던 윤인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해 주면서 다음 세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길렀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윤인구를 부르셨다. 자기 가문의 부나 개인의 치부보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도 같다.

Ⅶ. 결 론

윤인구의 교육사상은 넓고 원대하였으며 매우 실천적이었다. 이런 그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들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그룬트비, 톨스토이, 리츨, 토마스 아 켐피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평민들을 계몽하였으며,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의 “사전을 넘어서”라는 자전적 소설과 명치학원 재학 시 강연을 통해 윤인구에 영향을 미쳤다. 톨스토이는 참된 삶과 자유에 대한 단편집을 통해 윤인구에 영향을 미쳤고,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세속에 대하여 자신을 죽이는 삶의 교훈으로 윤인구에 영향을 미쳤다. 리츨의 조직신학과 성서연구는 윤인구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에서 세상이라는 현장을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윤인구는 설교를 통해 인생의 최대 사업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처럼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혼인집과 같은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연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길인 십자의 길로 나아가라고 했다.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농림부장관보다 농부, 문교부장관보다 일선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교육도 종교의 경지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윤인구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교육사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 지향의 교육이었다.

윤인구는 중학교 3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하고 일본, 미국,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목회를 하며 농촌지도자와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해 복음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윤인구가 설립한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가 일제로부터 폐교를 당하고, 조선신학교

28) 김재호, 가가벨의 하나님, 윤인구를 드러내라, <http://cafe.daum.net/gagamel555>,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육군 형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일곱 가지의 죄목으로 50일간 구금도 당하였다. 이후 윤인구는 계속적으로 민족의 부흥은 농촌의 부흥과 교육에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농촌부흥 운동과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최고 명문가의 자제였던 윤인구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해 주면서 다음 세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길렀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윤인구를 부르셨다. 자기 가문의 부나 개인의 치부보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예수님의 예화를 상기시킨다.

둘째, 사회구원 지향의 교육이었다.

윤인구는 두 개의 교회의 창립과 두 개의 신학대학과 두 개의 대학의 설립을 통한 교육목회와 사회봉사를 함으로 개인적인 구원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원을 이룩하여 이 세상에 진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목회자로서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 직접 교회를 창립하여 사회의 복음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무엇보다도 국립부산대학교와 부산사범학교(부산교육대학교)를 설립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윤인구는 목회자와 교육가로서 기독교 인재양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시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에 헌신을 하였다.

셋째, 삶의 실천 지향의 교육이었다.

윤인구는 봉사과 실천의 삶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룬트비의 교육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삶의 계몽'인데 이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살아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문자로 된 책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생생한 삶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구의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뛰어들어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움을 베푸는 실천적인 삶의 실천이었다.

넷째, 에큐메니칼 지향의 교육이었다.

윤인구는 일본의 메이지(明治)대학과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유학생생활 중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체득하게 된 셈이다. 나중에 윤인구가 유학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선신학원을 개교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합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장로교 소속인 윤인구는 신학교 인가를 받지 못한 감리교와 함께 신학교 수업을 합동으로 조화롭게 진행하였다. 윤인구는 교단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며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 장로회(한신대학교), 대한기독교 감리회(감리교신학대학교) 그리고 성공회(성공회대학교)가 연합하여 연합신학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했을 때 윤인구는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연합신학대학원을 연세대학교에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신학원의 감리교와 합동수업과 연세대학교에 연합신학대학원을 유치한 것은 윤인구의 일치와 연합의 에큐메니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청년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였다.

윤인구는 16세에 부모를 떠나 객지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17세에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꿈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다. 신학교에 들어가 문학과 철학 등 각 분야의 심오한 학문적 깊이를 다지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 청년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였다.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28세에 조국으로 돌아와 진주옥봉교회에서 목양을 시작하여 32세 때 마산복음농업실수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청년 복음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평생을 헌신하게 된다. 두 개의 신학교와 두 개의 국립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기독교 복음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여섯째, 교육 사업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화였다.

윤인구가 보는 교육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참다운 인생관 위에 선 교육이어야 하며, 모든 위대하고 가치 있는 후에 남길 일의 근거는 예수 신앙을 토대로 한 위대한 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인생 최대의 사업은 정치, 교육, 종교 등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이며, 참다운 신앙이란 올바른 신앙 위에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과, 신앙으로 농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된다고 했다. 우리 삶의 터전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윤인구는 뚜렷하고 확고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교육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곱째, 기독교세계관 지향의 교육이었다.

윤인구는 기독교가 국민의 삶에 봉사하는 정신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율법과 복음이 사람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이 자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과 잘 화합할 때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와 국민의 삶이 본래의 자유롭고 올바른, 그리고 자연스러운 신앙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윤인구의 교육사상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윤인구의 복음주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먼저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그리고 희생의 실천이었다.

참고문헌

-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전호윤 역, (서울: 설우출판사, 1973)
- 강정희, 「톨스토이의 교육 사상 연구」,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2010)
- 김기열, 『땅에 한 스승 계셨네 그의 참 삶, 그 옳은 정신(고 윤인구 박사 유고)』, (서울: 도서출판 그루터기, 1990)
- 김재호, 가가멜의 하나님, 윤인구를 드러내라(2012) <http://cafe.daum.net/gagamel555>,
- 김종규,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2010)
- 권이중, 이상은 공저 『평생교육 -이론편-』,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김영환, 『덴마크갱생운동사』, (서울: 신교출판사, 1959)
- 김혜선, 「톨스토이 자유 민중 교육에서의 문학예술의 의미」,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2006)
- 노치준, 「일제하 한국 교회 민족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미간행 박사논문, 1990)
- 노치준,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서울: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1993)
-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정교회, 『소정교회 50년사, 1958~2008』(부산: 도서출판 미남, 2010)
- 민경배, 『연합신학대학원 25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89)
-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방덕수, 『윤인구 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부산: 제일인쇄, 1988)
-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2006)
- 손인수, 「용제 백낙준의 생애와 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1977)
- 연세 창립 80주년기념 사업 위원회, 『연세대학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9)
- 유달영, 『새 역사를 위하여: 덴마크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동호서관, 1952)
- 안철암, 「배민수의 농촌 교육사상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논문 2005)
- 유달영, 『새 역사를 위하여: 덴마크의 어제와 오늘』(서울: 동호서관, 1952)
- 윤인구, “역사적 예수”, 『진생(眞生)』, (서울: 기독교 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1928)
- 이신형, 『리틀 신학의 개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김재준전집 제13권, 범용기(1), 새역사의 발자취(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92)
-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김정준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615&mobile&categoryId=1593>
- 한규무, 「일제 하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1925-1937년)」, (서울: 서강 대학교 미간행 박사 논문, 1995)
- 홀거 베그트롭·한스 룬트·페터 마니헤 공저, 『새 역사의 창조: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와 농촌사회의 발전』, 이기백 역(서울: 동양사, 1959)
- Albrecht Ritschl, The Three Essays(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2)
- Harald Westergaard, 『Economic development in Denmark』, (Lond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22)

- Kaj Thaning, 『덴마크 개척자 그룬트비』, 정원식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0)
- Karl Kristian Aegidius, "덴마크 사회와 그룬트비의 사상", 『처음처럼』 통권 제23호 (2001, 1-2)
- Lev Nikolaevich Tolstoy, 『종교와 그 진수』, 편집부 역 (서울: 신구문화사, 1980)
- N.F.S Grundtvig, 『Folk-Life and Christianity 1847』,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 Philip Hefner, *Faith and the Vitalities of History : A Theological Study Based on the Work of Albrecht Ritschl*(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6)